

# 『史記』와 司馬遷의 評價·思想에 대한 一攷

金 椿 姬 \*  
金 善 熙 \*\*

##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司馬遷의 評價와 그 思想 |
| II. 司馬遷과 『史記』 | IV. 맺는말            |

## <국문 초록>

21세기에 접어들면서 ‘文化’가 국가 경쟁력의 하나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문화콘텐츠’의 附加價値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문화 원형으로서 문화콘텐츠로 변형되기 이전에 가공되지 않은 재료인 인문학 분야의 각종 古典이다. 그중 司馬遷의 『史記』는 문화원형으로서 동양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문학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멸의 역작의 저자 司馬遷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司馬遷의 삶 역시 그가 남긴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독특한 한편의 이야기로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가 살았던 독특한 시대적 의미와 『史記』를 집필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司馬遷이 추구하던 사상의 근간을 추적하였는데, 지금까지 사마천은 儒家思想家 혹은 黃老思想家 등으로 인식 되어왔었는데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정신을 통해 그

\* 전북대학교 강사 / ruth-kim@hanmail.net

\*\* 전북대학교 강사.

의 진정한 사상의 면모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마천은 當時 社會나 制度에는 걸맞지 않는 時代를 뛰어넘는 人間의 普遍性을 自覺하고 追求했던 대단히 早熟하고 成熟한 自由主義者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은 모멸당한 자존심에 대해 거듭 새로운 자존심을 갖는다. 사마천은 그의 개인적인 비극을 통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하나의 영웅적인 예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동양 최고의 인문학의 보고인 『史記』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사마천이 추구하던 사상의 근간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자유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마천, 사기, 인본주의, 자유사상, 문화원형

## I. 머리말

자본주의의 팽배와 더불어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과 양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文化’가 국가 경쟁력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대중 매체를 통하여 산업과 교육에 무한히 적용이 가능한 ‘문화콘텐츠’<sup>1)</sup>의 附加價値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때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문화 원형으로서 문화콘텐츠로 변형되기 이전에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원천자료인 인문학 분야의 각종 漢文 古典이다.

司馬遷(B.C 145년?-B.C 86년?)의 『史記』는 문화원형으로서 동양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문학의 寶庫이다. 『史記』는 일반적으로, 역사서로서 그리스·로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서양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쓴 『歷史』에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史記』는 단순한 역사서가

1) 콘텐츠(contents)를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내용물’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매개체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는 작업과정을 총칭한다.(김기덕,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제1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아니다. 『史記』가 동양문화와 인문학 제반에 끼친 영향은 역사서로서뿐만 아니라 서양의 그리스·로마 신화가 서양에 끼친 영향력의 그것과도 필적할 수 있을 것이다. 『史記』가 만들어진 지 2천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흥미를 주는 까닭은 『史記』가 역사적이면서도 생생한 인간을 탐구하는 인간학의 교과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史記』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sup>2)</sup>은 역사를 살았던 실제 인간이며 『史記』는 그들에 관한 갖가지 삶의 모습과 인간관계를 보여준 책으로서, 그 속에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특히 사마천은 후대의 대부분의 역사적 저술을 위한 형식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문체와 학문적 방법도 결정하였으니,<sup>3)</sup>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문학서 또는 사상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멸의 역작의 저자 司馬遷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司馬遷의 삶 역시 그가 남긴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독특한 한편의 이야기로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독특한 시대적 의미와 『史記』를 집필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司馬遷의 사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儒家 혹은 黃老思想 등으로 인식되었는데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정신을 통해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史記』에 등장하는 인물만을 엮어 만든 책의 분량이 3000쪽을 넘는다.(鍾華編, 『史記人名索引』 影印版, 法仁文化社, 1987년. 원본은 北京: 中華書局, 1977.)

3) 라이샤워·페이뱅크 저, 전해중·고병익 역,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1987, p.139.

## II. 司馬遷과 『史記』

### 1) 『史記』의 가치

서양의 사마천 연구가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서양인으로는 프랑스의 샤반<sup>4)</sup>과 미국의 와츄<sup>5)</sup>이 있다. 샤반의 저작 『사마천의 역사기술: Les Memoires Historiques de Se-ma Ts'ien 1895-1905』은 “당시로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史記』 연구에 대한 최고의 연구수준으로 평가되었다”<sup>6)</sup>고 알려져 있는데 사기의 뛰어난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 역사의 위대함은 보통 말해지는 것처럼 그 요원한 옛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9세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소급되는 확실성과 정확성에 있다. 전설이 아니라 진실의, 그리하여 존재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연속하는 생활의 역사를 오랜 시대에 걸쳐 서술할 수 있는 민족은 달리 얼마나 있을까?……사실의 뼈대에 피와 살을 부여하는 것은 개개인의 인물이고 행동이다. 사마천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인격·사상·정열을 가진 인간을 연대기 사이에 삽입하여 과거 수세기 동안의 인간을 감정이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우리 눈앞에 조립하여 보여주는 대신, 사마천은 부차적인 요소를 맨 앞에 두는 중국의 정신에 따라 연대기 다음에 전기기를 두는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였다.……중국에서는 우

4) 샤반(Edouard Chavannes; 1865-1918)은 사마천의 사기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는데 사기 앞부분 47편을 「Les Memoires Historiques de Se-ma Ts'ien」라는 제목으로 5권이 번역되었고 1969년도에 제 6권이 Maisonneuve에 의해 간행되었다. 샤반은 첫 47편의 번역본을 출판하면서 거기에 사마천의 생애·시대·방법·자료에 관한 긴 서문을 붙였는데 이를 사마천에 대한 서구인의 최초의 연구로 꼽히고 있다.

5) 미국의 사기연구가 와츄(Burton Watson; 1925-)은 컬럼비아대학에서 사기 유허열전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Ssu-ma Chien : Grand Historian of China」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 Ssu-ma Ch'ien Grand Historian of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6) 박혜숙,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 한길사, 1988, p.5.

수한 인물 중에서도 특히 문학에 뛰어난 자가 최고라고 여겨졌다. 그러므로 사마천은 이들의 걸작을 수록하였고 또 이것에 의해 이들의 걸작은 불멸의 것으로 되었다.<sup>7)</sup>

미국의 와츨이 쓴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을 일본어로 번역한 이마다 카(今鷹眞)는 역자후기에서 이 책을 ‘현재까지 東西를 통해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하였다. 52만 6500자, 130편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로 중국 역사상 그 질적 양적인 면에서 前無後無한 업적을 이룬 사마천에 대해, 와츨은 ‘偉大한 사마천’으로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학자들이 사용하는 ‘위대한’이라는 의미는 『春秋』를 쓴 聖人인 공자에 비교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고나 사마광과 비교된다는 의미로 관형어 ‘위대한’을 쓰고 있다.<sup>8)</sup> 그러나 와츨이 쓴 ‘Grand’의 의미는 서양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에 필적하는’ 역사가로 사마천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위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마천과 『史記』를 소개하고 있다.

사마천(149-90? 기원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최초의 대역사가이며, 최대의 역사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작품 『史記』 130편은 최고의 시대로부터 그가 산 시대까지에 걸쳐 그가 알 수 있었던 범위의 중국과 외국 민족의 역사이다. 『史記』가 씌어지고 난 후 약 2천년 동안은 이 책은 중국의 모든 역사서 중 가장 넓고 가장 큰 감동으로써 읽혀졌던 책의 하나였다. 그 체제는 후세의 정사의 모범으로 되었다. 그 내용과 문체는 중국 및 중국 문화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의

7) 박혜숙, 위의 책, pp.142-149.

8) 『史記』는 漢나라 宣帝 때에 이르러 司馬遷의 외손자인 楊惲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唐代 중기까지도 학자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漢代 이래 儒家가 오랫동안 통치 이념으로 숭상되면서 도가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史記』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는데 漢代 揚雄의 『法言』, 王充의 『論衡』과 班彪의 비판, 晉代 張勳과 譙周의 『古史考』에 나타난 비판 등으로 맥락이 이어진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史記』보다는 『漢書』를 더 ‘정통적인’ 역사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劉節 著·辛太甲 譯, 『中國史學史 講義』, 新書苑, 2000.)

문학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 종종 행해지는 비교를 되풀이한다면,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서 전통에 미쳤던 것과 같은 영향을, 사마천은 중국·한국·일본·베트남의 그것에 미쳤던 것이다.<sup>9)</sup>

『史記』 130권 중 70권이 개인의 구체적인 성공과 실패를 추적한 개인 전기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사마천은 역사를 개인의 능동적인 활동의 집적으로 보았고, 개인의 禍福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개인의 도덕과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史記』가 만들어진 후 2천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기가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온갖 인물들에 대한 인물전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史記』는 격동기에 산 수많은 인간과 온갖 인간관계를 설명한 책으로서, 그 속에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어서 현대를 사는 방법과 지혜를 그 시대 인물들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史記』는 또한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문체를 가진 뛰어난 작품이며 같은 문장이라도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감동을 주는 고전이다. 뿐만 아니라 사기는 언제나 새로운 맛을 느끼고 삶을 관조하게 하는 지혜의 寶庫이며 철학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기』는 수천 년 동안 생명력을 잃지 않고 날로 복잡해져가는 오늘의 환경 속에서 더욱 더 그 가치를 발하여 영원한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독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문화원형으로서 각종 문화콘텐츠에 활용되는 ‘스토리텔링’에 해당하는 敘事는 오랜 동안 중국인들에게는 금기시 되거나 경시되어왔다.<sup>10)</sup> 공자가 말한 ‘기술하되 창작해서는 안 된다.’는 ‘述而不作’<sup>11)</sup>의 원칙은 모든 글쓰기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다. 중국인들에게 역사나 사

9) 박혜숙, 앞의 책, pp.159-160.

10) 서구적인 의미로는 로망(Roman) 혹은 소설[Novel]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통 시기 중국에서는 이런 것을 俗文學이라 하여 경시하였다.

11) 『論語』 卷7, 「述而」.

건의 기록은 있는 그대로 서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다.<sup>12)</sup> 그러나 司馬遷은 ‘紀傳體’라는 독특한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여 기술에서 서술로 이동되는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司馬遷은 『史記』를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하되 각각의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흥미진진한 박진감과 이해도를 높여놓았다. 사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화적이고 文學的인 要素[創作]가 훨씬 강해보이는 이유가 이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현대인들의 욕구에 가장 잘 부합하며 무한한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는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史記』 저술 동기

司馬遷은 ‘李陵의 禍’를 당한 후에 죽음보다 더한 恥辱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불후의 名著 『史記』를 완성한 인물이다. 그는 친구였던 益州 刺史 任安에게 쓴 편지인 「報任安少卿書」<sup>13)</sup>를 통해 자신의 입장과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힌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史記』를

12) 이점에 대해 사마천은 공자의 『春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혹평하고 있다. “기원전 481년 무렵에 공자는 盧나라에 관한 文獻을 編纂하고 그것을 분류 정리하여 『春秋』를 지었다. 이것은 기원전 722년부터 기원전 481년까지의 이 小國의 運命을 기록한 책이다. 사마천은 당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던 이 책을 크게 이용하였다. 본디 『春秋』에 대한 이러한 높은 평가는 유럽의 學者들은 同意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무미건조하고 생기 없는 年代記는 그보다 겨우 半世紀 후의 헤로도토스의 傑作에 비교할 수도 없다. 이 책에 대한 中國人의 높은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歷史의 技巧가 그리스에 비교하여 훨씬 늦게 발달하였고, 또 그리스만큼으로는 결코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박혜숙, 「사마천이 활용한 자료」, 앞의 책, p.137.)

13) 『漢書』 卷62, 「司馬遷傳」.

執筆한 意圖와 포부, 강력한 動機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서양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쓴 의도를 ‘인간계의 사건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잊혀져가고 그리스인과 이방인이 이룬 놀라운 위업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라고 하였다.<sup>14)</sup> 그러나 사마천은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기』를 쓴 것이 아니고, 반고나 사마광이 남긴 역사저작의 집필의도보다는 훨씬 더 포부가 컸다. 恥辱 속에서도 살아남아 『史記』를 完成하게 한 강력한 執筆 동기는 “하늘과 人間의 關係를 探求하고 古今의 變化에 通達하여 ‘一家之言’을 이루고자(欲以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한 것이었다. 즉 一家를 이룬 孔子의 『春秋』에 필적할 만한, 『春秋』를 뛰어넘는 力作을 통해 일가를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다.<sup>15)</sup> 司馬遷은 아버지의 遺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기의 제작 동기를 밝혔다.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공이 죽고 난 뒤 500년 만에 공자가 나왔다. 그리고 공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500년이 지났으니 능히 세상을 밝히고자 『역전』을 바르게 하고, 『春秋』를 계승하고, 『詩』·『書』·『禮』·『樂』의 근본을 구명할 사람이 있으리라!”라고 하셨는데, 뜻이 여기에 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내가 어찌 감히 (그 일을) 사양하겠는가!<sup>16)</sup>

14) 헤로도토스 저·박광순 역, 『역사·상』, 범우사, 2001.

15) 司馬光의 『資治通鑑』 한국어 번역자 권중달은 재미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사마광은 공자가 이미 다룬 춘추시대 역사를 『資治通鑑』 속에 넣지 않고, 그 뒤를 잇는 戰國時代, 즉 周 위열왕 23년(403)부터 다루었다. 여기에는 孔子가 쓴 『春秋』가 다시 손댈 수 없는 완벽한 책이라는 無言의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사마천의 『史記』는 춘추시대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는 공자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공자의 『춘추』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나름으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다.(권중달, 「육일 승천하는 힘 ‘자치통감’에 있다」, 푸른역사, 2002, p.88.)

16) 『史記』, 「太史公自序」 “先人有言, 自周公卒五百歲而有孔子. 孔子卒後至於今五百歲, 能紹明世, 正易傳, 繼春秋, 本詩書禮樂之際? 意在斯乎, 意在斯乎! 小子何敢讓焉.”



사마천은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周公과 孔子를 계승할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司馬遷은 계승의 週期<sup>17)</sup> 500년에 꼭 맞는 기간은 아니다. 周公에서 孔子까지는 500년이지만 孔子에서 司馬遷까지는 300년 정도이다. 그러나 기간의 의미보다는 司馬遷은 자신이 누구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확장해나갔으며 자신이 집필한 『사기』의 중요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漢 武帝 당시에는 알아 줄 사람이 없을 지라도 언젠가는 『사기』의 가치와 함께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랜 세월 후까지의 보존을 위해 명산에 숨겨야 할 책[藏之名山, 以俟後聖君子]이라고 했다. 孔子가 周公을 계승하여 『春秋』를 집필했다면, 司馬遷은 孔子를 염두에 두고 공자를 계승하여 『史記』를 집필했다.

### 3) 시대적 상황과 의미

中國의 哲學史家 풍우란은 意味 있는 時代區分을 하고 있는데, 諸子 百家의 思想이 爭鳴하던 春秋시대부터 漢나라 初에 이르는 400년간을 子學時代라고 하였고, 한무제 때 동중서의 주장이 시행되면서 자학시대는 끝이 나고 향후 2000년에 걸친 經學時代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 구분은 중국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시대구분 방법인데, 서양의 시대 구분 방식으로 말한다면 고대와 중세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단순히 시기만을 생각해서 나누면 중국에도 근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는 아직 근대가 없거나 근대는 겨우 싹트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sup>18)</sup> 이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 있어 보이며 서양이 주도하고 있는 학계의 분위기와 지금까지의 중국 역사·철학·경제의 제반 현상들을 서양에 비교하여 설명할 때에는 아주 잘 들어맞는 것 같다. 자학

17) 司馬談이 말한 오백 년 주기는 『孟子』를 인용한 것이다. 『孟子』, 「公孫丑上」  
“五百年必有王者興, 其間必有名世者”

18) 풍우란 저·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pp.29-41.

시대는 ‘중국 역사상 일대 해방의 시기’였다고 그는 평가하였는데, 諸子百家 ‘諸子’들의 탁월한 사상 저작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經學시대’의 시작은 통일된 한나라가 원활한 왕조 통치를 위해 사상통일의 목적으로 동중서가 유가를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유가가 다른 諸家の 학설보다 뛰어나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편의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뿐이라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중국역사를 바라보는 중국학자 황인우 역시 지지하고 있다. 즉 유가는 이전의 典籍에 통달하고 이전의 제도에 밝았으며 무엇보다 사회건설은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유가가 교육에 가장 적합했다는 것이다. 당시 가장 세력을 얻고 있던 諸家 중에서 道家는 ‘無爲’를 내세우며 건설의 적극적 意志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墨家は 이미 완결된 목자의 절대적 가르침을 설득하여 포섭하는 일에 치우쳤으며, 法家は 단순한 법조문의 숙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가가 통치논리로 채택된 이후로 중국 왕조들은 겉으로는 유가를, 속으로는 법가의 방식[陽儒陰法]으로 통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19)</sup> 사마천은 바로 이 시기, 즉 子學시대[諸子百家의 時代]가 끝나고 經學시대[儒家가 統治思想이 된 時代]가 시작하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던 시기<sup>20)</sup>에 활동하면서 불후의 저작 『史記』를 완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마천은 바로 그의 면전에서 400년에 걸쳐 이룩된 세계 최고의 정신적 산물인 百家들이 차려놓은

19) 황인우 저·홍관순 역, 『巨視中國史』, 5장, 까치, 1997.

20) 中國의 哲學史家 풍우란은 意味 있는 時代區分을 하고 있는데, 諸子百家들이 思想의 經綫를 펼치던 春秋시대부터 漢나라 初에 이르는 400년간을 子學시대라고 하였고, 한무제 때 동중서의 주장이 시행되면서 자학시대는 끝이 나고 향후 2000년에 걸친 經學時代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 구분은 중국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시대구분 방법인데, 서양의 시대구분 방식으로 말한다면 고대와 중세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단순히 시기만을 생각해서 나누면 중국에도 근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는 아직 근대가 없거나 근대는 겨우 싹트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풍우란, 앞의 책, pp.29-41. 참조.)

풍성한 思想의 食탁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였다. 그리고 교조화되고 도그마화한 유교제 일주의의 긴 터널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풍우란 식으로 말하면, 사마천은 고대에도 중세에도 속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이것은 사마천과 『史記』를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사마천은 그의 타고난 역사가로서 분별력과 통찰력, 무엇보다 절제할 줄 아는 筆力과 인간의 內面을 만질 줄 아는 감수성, 그리고 그가 전편을 통해 대단히 강조하는 家系, 특히 대대로 역사가의 피를 이어받은 그의 아버지 사마담에 의해 역사가로 키워지기 위한 특별교육[여행 등], 그리고 무엇보다 諸子百家들의 풍성한 사상들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었던 시기에 살았다. 그리하여 좋은 역사서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제자백가의 사상을 모두 숙지하고 있었고 비판할 능력도 있었지만 그 어느 것에도 심하게 경도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공자를 높이고 흠모한 흔적은 보이지만 유가 사상의 소유자라는 데 조금의 의심도 할 수 없는 반고가 보여주었던 경직된 공자숭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반고가 공자를 성인으로만 떠받들었던 것에 비해 사기를 통해 감히 공자와 같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였다. 이것은 그가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Ⅲ. 司馬遷의 評價와 그 思想

중국 전한시대의 사상의 큰 흐름은 黃老思想에서 儒家思想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sup>21)</sup> 그리하여 사마담을 황노사상으로, 사마천을 유가사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후세 학자들은 사마천을 받고

21) 加地申行, 『史記-司馬遷の世界』, 講談社, 소화 53년(1978), p.52.

나 사마광에 비교하기를 즐겨하면서<sup>22)</sup> 사상 면에 있어서는 儒家思想으로<sup>23)</sup> 黃老思想으로<sup>24)</sup> 평하였으니, 이러한 평들은 뒷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유가사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개 『史記』 卷47, 「공자세가」를 노자나 기타 諸子百家들을 수록한 ‘列傳’에 넣지 않고 諸侯나 王을 기록해 놓은 ‘世家’ 부분에 넣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 황로사상과 관련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기』 卷130, 「태사공자서」 중에 아버지 사마담이 사마천에게 들려준 말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六家要旨」에서 황로사상을 중시하는 부분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 주장들이 물론 대단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 
- 22) 현대 중국의 저명한 사학자 중의 한 사람인 劉節은 『史記』와 『漢書』·『史記』와 『資治通鑑』을 각각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사마천은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의 사람이다. 반고의 시대는 약간 늦지만 그 역시 기원 1세기 사람이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중국에 이러한 사상체계, 구체적인 계획과 엄밀한 조직을 갖춘 데다가 훌륭한 문체로 쓰여진 저작이 있었다는 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것은 중국의 사학이 선진시대에 이미 기초가 다져져 있었기 때문이다. 『春秋』·『國語』·『全國策』·『世本』은 선진 시기 4부의 대저작이다. 사마씨·반씨 부자는 이 기초 위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전체의 창시는 사마천 부자의 공이며, 단대사의 창시는 반고의 공이다. 사기는 통사이다.”(劉節 著·辛太甲 譯, 앞의 책, 6장.); “『사기』와 『자치통감』을 비교해 보면 중국 사학계에서 전후 두 사마씨는 모두 위대한 사가임에 틀림없다. 『사기』와의 위대한 점은 내용과 체제면에서 모두 창조적인 발전을 이루어 중국사학을 크게 진전시켰다는 데 있으나 결점 또한 많다. 『자치통감』으로 말하면 이것은 진정으로 규모가 방대하고 사려가 정밀하며 내용이 풍부한 저작이다. 게다가 『자치통감』의 중심사상은 아주 명확한데, 그것은 바로 봉건통치계급의 장기간에 걸친 경험의 축적을 대표하는 사상이다.”(劉節 著·辛太甲 譯, 앞의 책, 12장. 참조.)
- 23) 李寅浩, 「司馬遷의 黃老思想」, 『道教學研究』 14집, 한국도교학회, 1996. 이 인호는 이 논문에서 사마천을 유가사상의 인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열거하면서 소개해 놓았다. 『사기』 전권을 번역한 정범진 역시 권말에 해설을 덧붙이면서 사마천을 유가사상가로 소개하였다.
- 24) 박재희, 「사마천사상의 비판적 검토」, 『유교사상연구』, 한국유교학회, 1998.; 이인호, 「司馬遷의 孔子觀」, 『民族과文化』 Vol. 8, 漢陽大學校 民族學研究所, 1999.

사마천은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즉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周公에서 孔子 그리고 그 다음 인물로는 사마천 자신이라고 스스로 계보를 밝혀 놓았다. 그렇다고 사마천이 공자의 유가를 추종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대로 계승하려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 즉 歷史라는 방법을 통하여 주공과 孔子에 필적하는 인물로 남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이릉의 화’를 당하여, 깨끗한 죽음보다는 살아남아 일가를 이루기 위해[成一家] 구차하고 치욕적인 궁형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마천은 『史記』 全篇을 통해 孔子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 점으로 말미암아 그가 儒家에 傾倒된 인물로 간주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관점 즉, 그가 공자를 자신과 견줄 수 있는 인물로 생각했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1) 儒家로서의 평가

한나라 때 董仲舒는 황로사상의 중심에서 유교사상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큰 공을 세웠다. 그는 五經博士라는 제도를 만들어 유교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사마천 나이 11세였다. 그가 정규교육에 들어간 시기는 10세이기 때문에 그는 유학 경전을 일찍이 접하였다. 그리하여 사마천은 유학 경전을 통해 孔子의 위대성을 알았기에 춘추시대 활약한 공자에 관해서는 「孔子世家」·「仲尼弟子列傳」·「儒林列傳」 등<sup>25)</sup>으로 일부러 卷을 독립시키고 이 밖에도 상당한 紙面을 할애하였다. 특히 「孔子世家」에서는 공자의 成功은 3,000명에 달하는 제자들과 특히 그 중의 小數 精銳 72인의 養成에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주장하고 있다. 『論語』를 재구성하여 에피소드를 통

25) 『史記』 卷47.; 『史記』 卷67.; 『史記』 卷121.

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仲尼弟子列傳」으로 엮어낸 실력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공자의 성공은 제자들에 의한 것이었음을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商術에 能하여 千金을 모았던 子貢, 物理的인 힘으로 孔子의 귀에 僞답이 들리지 않게 했던 子路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孔子를 음으로 양으로 보필하여 유가를 번성케 했으며, 공자의 기대 이상으로 막강했던 유가의 힘은 그 근원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또 「儒林列傳」에서 한무제가 기용했던, 유가에 경도된 재상들[田盼·公孫弘]들이 당시 유행하던 황로와 刑名 百家 學說을 배격하고 儒學者들을 대거 초청하여 儒學이 한나라에 퍼지게 된 경위를 詳述하고 있다. 이 역시 이러한 경위로 후학들에 의해서 孔子의 위치가 공고해졌음을 말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마천의 진정한 숨은 의도는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天下에는 君王에서 賢人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살았을) 당시에는 榮華로웠으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공자는 布依로 살았지만 10여 세대가 지나도 학자들이 그를 으뜸으로 삼는다. 天子·王侯로부터 중국의 六禮를 談論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자의 말씀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가히 至聖이라 할 수 있겠다.<sup>26)</sup>

이것은 공자가 타고난 성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했다기 보다는 후세 사람들의 평가가 그를 ‘至聖先師’로 만들었다는 점을 은근히 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으로 그는 「報任安少卿書」에서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 자신을 알아줄 후세 사람을 위해 치욕을 무릅쓰고 저술하였으며 (공자처럼) 후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자신이 당한 모든 치욕과

26) 『史記』 卷47, 「孔子世家」 “天下君王至于賢人衆矣, 當時則榮, 沒則已焉. 孔子布衣, 傳十餘世, 學者宗之. 自天子王侯, 中國言六藝者折中於夫子, 可謂至聖矣!”

고난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27)</sup> 이 밖에 「공자세가」에서 노자와 공자가 만나는 자리에서 노자를 통해 공자를 비판하게 하는 점이 라든지 「육가요지」에서의 유가 비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심심치 않게 유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유가를 숭상한 유학도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더욱이 사마천은 궁형으로 인하여 신체를 훼손하였기에 불효자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그가 「太史公自序」에서 『효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효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서 비롯하고 임금을 섬기는 것에 적중하고 몸을 세우는데 마치고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효의 큰 것이다.”<sup>28)</sup>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에게 유교의 효 사상이 내면에 가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불효자라는 의식을 극복하고자 아버지 사마담의 뜻과 일을 계승하면서<sup>29)</sup> 후세에 이름을 드날리고 부모를 드러나게 하였으니 이는 효를 다하려는 굳은 의지를 표출하였다. 효는 바로 공자가 지향하는 仁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사마천은 효의 표출의지를 통해 공자의 정신에 껴안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자세가」를 ‘열전’에 두지 않고 ‘세가’에 넣어 공자를 높인 것은 공자를 숭상하여 공자를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공자에 필적하는 업적을 남기게 될 사마천 자신에 대한 후세인의 평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7) 『漢書』 卷62, 「사마천전」, 「報任安少卿書」 “나는 진실로 이 책[『史記』]을著述하여 名山에 보관하였다가 그것을 (내 뜻을 알아줄) 그 사람에게 전하여 시골이나 큰 도시에 流通되게 한다면 이전에 받은 恥辱의 報償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비록 만 번 죽음을 당한다 해도 어찌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정은 지혜로운 사람에겐 가히 말 할 수 있지만 俗人에겐 말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8) 『史記』 卷137, 「太史公自序」 “且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此孝之大者.”

29) 『中庸章句』 第19章, p.800,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참조.

## 2) 黃老思想家로서의 평가

진시황은 통일한 후 형벌을 중시하는 법가사상에 기초하여 전제주의를 지향하며 가혹하게 지배하였다. 한고조는 진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국가를 지향하였지만 진시황의 엄격한 사상통일 정책 대신 비교적 자유롭게 사상을 표방하며 국가를 정비하였다. 특히 한나라 초기 70여 년간은 크게 사상 통제가 없었다. 즉 이 기간에는 진나라가 시행한 법가사상도 동시에 잔존하였으나 법가사상을 대신해 黃老思想이 등장하였다. 黃老는 黃帝와 老子를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황제는 최초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를 전개하고 노자는 虛心과 無爲而爲의 사상을 전개하였는바, 이 두 사상을 결합한 것이 바로 황로사상이다. 이 황로사상은 인간이 내함한 내면의 道에서 法이 생기며 道는 法을 초월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실권자로 행사하던 竇太后가 이 황로사상에 경도하자 황로사상이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황로사상은 두태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번창하다가 무제 때에 이르자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사마담은 「六家要旨」에서 六家, 즉 陰陽家·儒家·墨家·名家·法家·道德家를 간략히 말하고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 사마천은 「太史公自序」중에서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의 입을 통해서 陰陽家·儒家·墨家·名家·法家·道德家 등 육가에 관해 要點 정리를 하고 長短點을 비교했는데 특별히 道家를 儒家에 비교하여 비판 없이 칭찬하고 있다. 후한 때 班固는 이를 근거로 사마천을 도가사상가나 황로사상과 연관 지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사마천을 황로사상가로 평가하는 경향이였다.<sup>30)</sup>

특히 사마천은 曹參이 황로학에 뛰어난 蓋公을 초빙하여 황로사상적 정치술을 묻자 개공이 “다스리는 방도는 淸淨을 귀하게 여긴다면 백성

30) 李寅浩, 「司馬遷의 黃老思想」, 앞의 논문.



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정치의 들어 제나라의 승상이 된지 9년만에 제나라는 평안하였고 조참은 어진 승상이라고 크게 명성 얻은 것을 거론하기도 하였다.<sup>31)</sup> 더욱이 사마천은 「留侯世家」에서 留侯가 말한 내용, 즉 유후가 인간의 일을 떨쳐버리고 仙人 赤松子를 따라 고고하게 지내 고자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곡류를 안 먹고 술잎·대추·밤 등을 먹는 辟穀을 말하고, 또한 도가의 양생 가운데 호흡법·신체단련을 통해 질병을 퇴치하는 導引術을 행하여 신체를 가벼이 하는 훈련을 하였다고 평하였다.<sup>32)</sup> 나아가 『사기』의 곳곳에 노자를 인용해 놓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이 사마천을 黃老思想家로 판단하는 근거들이다.

사마천은 「六家要旨」·蓋公·留侯, 그리고 百家 思想家들의 列傳편을 통해 보여주고 있듯이 諸子들의 사상을 충분히 熟知하고 있었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상들을 편의에 따라 『史記』 전편에 걸쳐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몇 가지 특정한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칭찬했다고 하여, 그가 하나의 특정한 사상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마천이라는 巨人을 보기 위해서는 巨視的인 視線으로 볼 必要가 있다. 그는 앞에서 이미 言及한 子學시대와 經學시대의 分岐點에 위치하면서 이미 완성된 諸子 思想家들의 思想을 마음껏 흡수하여 자신의 독특한 思想을 구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미 諸子の 그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思想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반고를 확실히 유가적인 인물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사마천을 유가의 인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사마천을 莊子 같은 도가의 인물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게 된다.

31) 『史記』 卷54, 「曹相國世家」 “天下初定, 悼惠王富於春秋, 參盡召長老諸生, 問所以安集百姓, 如齊故俗諸儒以百數, 言人人殊, 參未知所定. 聞膠西有蓋公, 善治黃老言, 使人厚幣請之. 既見蓋公, 蓋公爲言治道貴清靜而民自定. 推此類具言之, 參於是避正堂, 舍蓋公焉. 其治要用黃老術, 故相齊九年, 齊國安集, 大稱賢相.”

32) 『史記』 卷55, 「留侯世家」 “願棄人間事, 欲從赤松子游耳. 乃學辟穀道引輕身.”

## 3) 인본주의적 자유사상

사마천은 어떤 思想의 소유자였을까? 그 답은 歷史를 ‘事件’이 아니라 ‘人間’으로 바라보는, 有史 以來 사마천이 처음 시도했던 形式인, ‘列傳 形式’[紀傳體]에서 찾고 싶다. 사마천은 歷史를 황제가 中心이 되어 전개되고 있는 ‘事件’으로 보기보다는 개개인의 ‘人間의 삶’으로 보았고, 『史記』 全篇을 통해 後學인 우리에게 ‘人間’을 보여주고자 ‘列傳’이라는 樣式을 고안해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사마천의 思想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의미를 적용하여 ‘사마천의 自由精神’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유정신’이란 外延이 너무 넓어서 여기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정신 속에는 보편 인류가 지금까지 그것을 얻기 위해 그토록 투쟁하고 갈망해왔던, 황제나 그 어떤 理念이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創造의 根源이 되는 獨立되고 成熟한 人間정신이라는 意味가 들어있다.

사마천의 生涯에는 대단히 重要的 두 번의 選擇이 있었다. 選擇이란 人間의 自由意志가 前提되어야만 한다. 자유로운 精神을 추구하고 자유의지를 價値로 여기는 사람만이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選擇을 할 수 있는 법이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선택은 中國人들로서는 죽음보다 더 苦痛으로 여기는 恥辱과 侮蔑을 지拂해야 하는 구차한 삶이었다. 두 번의 선택에서 보여준 사마천의 모습은 人間的인 따뜻함과 不屈의 自尊心이었다. 물론 그것은 사마천의 자유정신에 그 기반을 둔 것일 것이다.

사마천의 첫 번째 선택은 ‘이릉의 禍’를 자초한 것이다. ‘이릉의 문제’는 “天文과 曆法에 關한 일을 관장하여 점쟁이나 무당에 가까웠고 본디 주상께서 戲弄의 對象으로 여기시며, 악공·俳優의 部類로 기르셨고 世俗 사람들이 輕蔑하는” 일개 史官이 끼어들 問題가 아니었다.<sup>33)</sup> 그는 “이릉과는 더불어 같은 문화에 있었지만, 본디 親密하지는 않았고, 취향

이 다르고 길이 달라서 일찍이 같이 술을 마시거나 交際의 즐거움을 나눈 적도 없었다.[夫僕與李陵俱居門下，素非相善也，趣舍異路，未嘗銜杯酒接殷勤之歡]”라고 고백하고 있다. 즉 그는 이릉과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었고, 義理를 지켜 편들어야 할 처지도 아니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서 당시의 輿論이나 皇帝의 기분을 거슬러가면서 이릉을 辯護하였고, 결국 死刑을 선고받았다.

개인적인 친분도 없던 이릉을 위해 죽음을 不辭하며 그를 변호하려 하였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人間 이릉’에 대한 따뜻한 共感과 당시 朝廷에 있던 臣下들의 自己 안위만을 위해 이릉을 謀害하기까지 하는 人間性에 대한 失望이었다.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이릉) 사람됨을 살펴보니 스스로 뛰어난 선비입니다. 부모를 효로 섬기고, 선비를 사귀에 신의가 있으며 재물에 대해서는 청렴하고 주고받음에 공정함을 지키고 상하의 분별하여 겸양하였고 공손하고 겸약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항상 분발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의 위급함에 몸 바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쌓아둔 바는 나라의 큰 선비로서의 기풍이 있다고 저는

33) 『漢書』 卷62, 『司馬遷 第三十二·報任安少卿書』 “내 조상은 割符나 朱書를 받아 높은 관직에 오를 만한 공적도 없고, 기록이나 천문·역서를 다루는 일은 점쟁이[卜祝]의 무리와 근사하여 본래 황제께서 노리개감으로 여기며 배우들처럼 기르던 존재인지라 속세에서 경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설사 내가 법의 제재를 받아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터럭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내 존재란 땅강아지나 개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절개를 지키다 죽는 사람과 비견해줄 리는 없고 그저 지혜가 다하고 죄가 너무 무거운 까닭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당했을 뿐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처신 해온 바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본래 한번 죽기 마련인데, 죽음에는 泰山보다 무거운 것도 있고 기러기의 깃털보다 가벼운 것이 있으니, 이것은 그 죽음을 걸고 추구한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僕之先人非有剖符丹書之功，文史星曆近乎卜祝之間，固主上所戲弄，倡優祝之，流俗之所輕也。假令僕伏法受誅，若九牛亡一毛，與螻蟻何異？而世又不與能死節者比，特以爲智窮罪極，不能自免，卒就死耳。何也？素所自樹立使然。人固有一死，死有重于泰山，或輕于鴻毛，用之所趨異也。]”

생각했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만 번 죽어도 생명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구하려는 것, 그것이야말로 뛰어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행한 일이 하나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자기 몸과 처자를 보호하는데 급급할 뿐인 신하들이 서로 뒤이어 그의 잘못으로 모해하였으니 저는 진실로 마음속으로 통분히 여겼습니다.<sup>34)</sup>

다른 하나는, 하늘이라 불리는 천자인 무제를 황제 이전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었다. 감히 주재님께 황제의 슬픔과 번뇌를 함께 나누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릉이 패했다는 보고를 듣자, 황제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몰랐으며 朝議를 들어도 불편해 하였습니다. 대신들은 근심하였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천함은 헤아리지 않고 주상의 슬픔과 번뇌를 보고는 저의 어리석은 충성을 다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sup>35)</sup>

이상이 사마천 스스로 밝힌 ‘이릉의 화’를 당하게 된 이유이다. 자유정신을 소유한 인간만이 삶의 본능을 거슬리면서도 자유의지로 죽음을 무릅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려서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재주[정신]를 자부하였지만, 자라는 마을에서 어떤 칭송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sup>36)</sup>

‘이릉의 화’로 죽음을 맞게 된 사마천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선택을 한

34) 『漢書』 卷62, “夫僕與李陵俱居門下, 素非相善也, 趣舍異路, 未嘗銜杯酒接殷勤之歡. 然僕觀其爲人自奇士, 事親孝, 與士信, 臨財廉, 取予義, 分別有讓, 恭儉下人, 常思奮不顧身以徇國家之急. 其素所畜積也, 僕以爲有國士之風. 夫人臣出萬死不顧一生之計, 趙公家之難, 斯已奇矣. 今舉事壹不當, 而全軀保妻子之臣隨而媒孽其短, 僕誠私心痛之!”

35) 『漢書』 卷62, “後數日, 陵敗書聞, 主上爲之食不甘味, 聽朝不怡. 大臣憂懼, 不知所出. 僕竊不自料其卑賤, 見主上慘淒怛悼, 誠欲效其款款之愚.”

36) 『漢書』 卷62, “僕少負不羈之才, 長無鄉曲之譽”

다. 사마천의 두 번째 선택은 죽음보다 치욕적인 형벌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은 치욕적인 삶보다는 죽음을 더 명예롭게 여겼기 때문에 죄인이 돈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사든지, 자결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돈도 없었던 사마천은 천한 노복이나 하녀조차 자존심을 지켜 자결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명예인 자결이 아닌 치욕의 삶을 선택했다. 그것은 살고 싶은 본능으로서가 아님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고, 진정한 자존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자유의지로 치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37)</sup> 그는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천한 奴僕이나 下女조차도 오히려 능히 자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럴 수 없었을까요! 苦痛을 참고 구차하게 살며 더러움[恥辱] 속에 있으면서도 마다지 않은 것은 제 마음속에 다 드러내지 못한 바가 있는데, 비루하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려 後世에 文彩를 드러내지 못함을 恨으로 생각한 때문입니다. 옛부터 富貴하였지만 이름이 磨滅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卓越하고 어디에도 罔微不至 않는 비상한 인물만이 일컬어질 따름입니다.<sup>38)</sup>

그가 치욕을 선택한 이유는 후세 사람인 우리가 ‘탁월하고 어디에도 罔微不至 않는 비상한 인물’로 그를 알아줄 것을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었고 존재 이유였다. 그의 사상을 단지 유가나 황로 그 어느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에 직면한 입장에서 벗어

37) 『漢書』 卷62. 반고는 이 점에 대해 유가적인 입장으로 비평하기를 “『大雅』에 이르기를 명철하면 능히 그 몸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로구나.[夫唯『大雅』既明且哲, 能保其身, 難矣哉]”라 하여 사마천의 비운을 꼬집었다.

38) 『漢書』 卷62, “且夫臧獲婢妾猶能引決, 況若僕之不得已乎! 所以隱忍苟活, 函糞土之中而不辭者, 恨私心有所不盡, 鄙沒世而文采不表于後也. 古者富貴而名磨滅, 不可勝記, 唯儻非常之人稱焉.”

나도 된다면 황로나 유가가 그 아래에 깔려 있는 자유정신을 그의 사상의 하나로 말하고 싶다.

#### IV. 맺는말

司馬遷은 그의 타고난 역사가로서 분별력과 통찰력, 무엇보다 절제할 줄 아는 筆力과 인간의 內面을 만질 줄 아는 감수성, 그리고 그가 전편을 통해 대단히 강조하는 家系, 특히 대대로 역사가의 피를 이어받은 그의 아버지 사마담에 의해 역사가로 키워지기 위한 특별교육[여행 등], 그리고 무엇보다 諸子百家들의 풍성한 사상들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었던 시기에 살았고, 그리하여 좋은 역사서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司馬遷은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史記』를 쓴 것이 아니었다. 恥辱 속에서도 살아남아 『史記』를 完成한 가장 강력한 執筆 동기는 “하늘과 人間의 關係를 探求하고 古今의 變化에 通達하여 ‘一家之言’을 이루리라.”<sup>39)</sup>고 한 것이었다. 즉 一家를 이룬 孔子의 『春秋』에 필적할 만한, 『春秋』를 뛰어넘는 力作을 통해 一家를 이루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司馬遷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의미와 개인적인 삶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그가 살았던 歷史的 地點은 古代와 中世의 分岐點이었으며, 그는 古代에도 中世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관점으로 歷史를 바라본 인물이었다. 그는 子學時代와 經學時代의 分岐點에 위치하면서 이미 완성된 諸子 思想家들의 思想을 마음껏 흡수하여 자신의 독특한 思想을 구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미 諸子の 그 어느 하나에는 屬할 수 없는 思想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儒家나 黃老思想으로 단정 지어 그의 사상을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司馬遷은 古代에도 속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렇다고 孔子를 계승하여 中世를 시작하려고

39) 『漢書』 卷62, “欲以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

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가 ‘이릉의 화’를 당했음에도 치욕을 무릅쓰고 자유의지로 삶을 선택한 이유는 후세 사람인 우리가 ‘탁월하고 어디에도 없애이지 않은 비상한 인물’로 그를 알아줄 것을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었고 존재 이유였다. 그는 當時 社會나 制度에 는 걸맞지 않는 時代를 뛰어넘는 人間의 普遍性을 自覺하고 追求했던 대단히 早熟하고 成熟한 自由精神의 소유자였다. 즉 그는 동양 최고의 인본주의에 근거한 자유사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이며 사회학자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21 세기는 동양의 시대라고 예견하였다. 또 20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버트런트 러셀 역시 서양 중심의 문명은 문화 선진국인 동양이 주도하는 세계로 그 중심이 전이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만년에는 중국을 방문하는 등 동양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서양 학자들은 일찍 부터 동양을 주목하였고, 동양의 정신 속에 미래를 열어갈 해답이 있다고 믿는 많은 서양학자들은 일찍부터 동양의 고전을 연구해 왔다.<sup>40)</sup> 이들의 예언대로 앞으로 동양의 시대가 열린다면 『史記』는 문화원형의 寶庫로서 그 빛을 더욱 발하게 될 것이다.

#### <參考 文獻>

『史記』

『孟子』

『中庸章句』

『漢書』 卷62, 「司馬遷傳」

鍾華 編, 『史記人名索引』, 影印版, 法仁文化社, 1987.

권중달, 『육일 승천하는 힘 ‘자치통감’에 있다』, 푸른역사, 2002.

40) 서양에서의 동양 고전 번역과 연구 성과는 金容沃, 『東洋學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1985. pp.43-46. 참조.

- 김기덕,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제1호, 인문콘텐츠학회, 2003.
- 金容沃, 『東洋學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1985.
- 라이샤워·페어뱅크 저, 전해중·고병익 역,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1987.
- 박재희, 「사마천사상의 비판적 검토」, 『유교사상연구』, 한국유교학회, 1998.
- 박혜숙,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 한길사, 1988.
- 劉節 著·辛太甲 譯, 『中國史學史 講義』, 新書苑, 2000.
- 李寅浩, 「司馬遷의 黃老思想」, 『道教學研究』 14집, 한국도교학회, 1996.
- , 「司馬遷의 孔子觀」, 『民族과文化』 Vol. 8, 漢陽大學校 民族學研究所, 1999.
- 풍우란 저·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상』, 까치, 1999.
- 헤로도토스 저·박광순 역, 『역사·상』, 범우사, 2001.
- 황인우 저·홍관순 역, 『巨視中國史』, 까치, 1997.
- 加地申行, 『史記-司馬遷の世界』, 講談社, 소화 53년(1978).



### 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Thoughts of Shiji and Simaqlan*  
/ Kim Choon Hee & Kim Sun Hee\*

As we enter the 21st century, 'culture' draws attention as a nation's competitiveness and interests are higher than ever before on the added value of 'Culture Contents'. What we focus on here are the long accumulated Culture Archetypes the ingredients before modification into culture contents - various classics of the humanities. Amongst those is Shiji of Simaqlan, a culture archetype which is one of the treasure houses of oriental human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uthor of the masterpiece Simaqlan. This is because the life of Simaqlan himself, as the lives of so many he portrait in his writings, moves people for years as a unique and distinguished story. First the epochal meaning of the unique era in which he lived is examined and then the true reason behind why he started writing Shiji. An inquisition is made thereafter for the foundations of his philosophy. Until now, Simaqlan is perceived to be a Confucianist of a Huang-Laoist. The reason and evidence behind this assumption is inspected. His humane features and spirit is also examined. The research proves Simaqlan as a latitudinarian who surpasses the era in which he lived and the system. The personal tragedy of Simaqlan exemplifies a heroic figure which shows why humans need to live. The result is the orients greatest treasure source of Humane Studies, Shiji. The fundamentals behind Simaqlan 's philosophy is Freedom thought grounded in humanism which believes the human life to be the most precious thing.

---

\* Lecturer of Chonbuk National Univ. / ruth-kim@hanmail.net

【Key words】 Shiji, Simaqian, Confucianist, Huang-Laoist, archetype,  
humanism, latitudinarian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일 :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12월 2일